주민의 삶의 질 분석
- 주관적·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

Quality of Life Depending on City Infrastructure Looking through of Subjec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김 진 아 (주식회사 에코파이 연구원 - 주저자)
변 병 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 희 선 (경남대학교 도시환경공학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Jin-A Kim / Hee-Sun Cho / Byung-Seol Byu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 subjective perception of individual satisfaction level on city infrastructure should be surveyed, and objective evidences to verify these survey results are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develop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analyz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nd thus to identify the living standard of local residents in the city of Incheon and finally determine w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argeting local residents in 8 districts of Incheon, there are a large gap between quantitative estimates and qualitative result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ir satisfaction level was high in general, specifically in the following districts: Dong-gu, Seo-gu, and Namdong-gu, arranged in descending order. However, the objective evaluation indicators were rated high in Jung-gu, Bupyung-gu and Yeonsu-gu district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results of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satisfaction level appears distinctively different for each evaluation item. Specifically, based on their location,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objective evaluation indicators. In other word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ir satisfaction level is not affected by the conditions of city infrastructure, which means it can be affected by the quality level and other factors. Accordingly,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ppropriate policies for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ensured, and also the conditions of physical and non-physical infrastructure should be enhanced. Furthermore, there needs be any alternative forms of measurement to track changes of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local context.

주 제 어: 삶의 질, 도시기반여건, 주관적 만족도, 객관적 평가지표, 인천광역시

Keywords: quality of life, city infrastructure, individual satisfaction level subjective perception, objective evaluation indicator, Incheon metropolitan city

I. 서 론

최근 '웰빙(Well-being)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Lifestyle Of Healthy And Sustainability)'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는 효율성과 기능성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삶의 질(Life Quality)과 행복 증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집중,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 도시생활의 부정적 문제들에 대한 도시민의 반성과 자각은 소득향상과 더불어 더욱더 좋은 생활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가치관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환경부, 2008).

정부와 지자체들은 국민행복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행복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여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권영섭, 2013).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민선 5기 3년 시정 평가 토론회(2013년)'에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실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에 자살률이 높은데, 특히 도심의 자살률이 신도시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위권이며, 1인당 사회복지 예산 또한 다른 광역시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의 비물리적 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그 지역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정창무, 2007).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객관적인 지표와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둘째,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검증의 방법으로 객관적 측정지표를 선정하여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판단과 비교한다. 본 연구는 현재 인천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삶의 질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나 평가체계는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은 종종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권영섭(2013)은 광의냐 협의냐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행복이 삶의 질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의 질은 주관적 평가의식을 규정하는 복합적인 요인이며(고영복, 2000), 개인의 삶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 의한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최근 삶의 질은 도시발전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오영석 외, 2006), 거주 지역의 환경적·물리적·심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삶의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김구, 2003). 또한 일상생활의 외형적 상태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이기도하다(박현옥 외, 2006). 지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이경태 외, 2010)이며, 실제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환경이기도 하다(김순호 외, 2012).

삶의 질 개념과 마찬가지로 행복 또한 학자들 사이의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다. 행복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Diener and Emmons, 1985). 객관적 차원은 의식주, 성별, 연령, 소득 등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을 의미한다. 주관적 차원은 삶에 대한 행복감, 문화, 안전 등의 주관적 인지상태를 의미한다(황명진 외, 2008; 배웅규 외, 2012). 김창연 외(2012)는 행복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로부터 기인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 하고, 개인의 웰빙 또는 삶의 질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으로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감에 의해 결정되는 경험이라고 정의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삶의 질은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기대에 의해 편차가 발생되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태종 외, 2012). 다양한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및 행복을 광의의 관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개념(김창연, 2012;, Donnelly, 2004; Veenhoven, 2007)으로 보고자한다. 즉 삶의 질은 사회가 제공하는 물리적·비물리적 인프라의 조화에 의한 개인의 행복이 증진되는 정도라고 해석하기로 한다.

2. 삶의 질 관련 지표 개발과 적용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지표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 지표 개발과 주관적 지표 개발, 그리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강조하는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객관적 지표는 사물의 객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반해,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의미한다(임진택, 2003).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한 방법은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주로 설문이나 대인면접을 통해 삶의 질을 평가한다(배웅규 외, 2013).

객관적인 삶의 질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혜수(1996)는 복지지원과 서비스 수요는 삶의 질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반면, 편익시설은 삶의 질에 정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안전부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강창민 외, 2010), 강원도민의 행복수준은 경제, 사회·복지, 의료·보건 부문에서는 낮고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규선, 2012). 한편, 경기도 인구를 50만 명을 기준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세분화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주거환경, 교통, 공공안전은 대도시의 삶의 질 을 높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사회복지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태 외, 2010).

한편, 객관적 지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제한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Veenhoven, 1991). 다시 말해,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의 지표로 파악될 수 없으며, 주관적인 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이영균 외, 2007). 행복의 기준은 개인차원의 경험과 느낌이며, 개인의 행복이 모여 도시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이성규 외, 2006).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선기(2007)는 경제, 안전, 편리, 쾌적, 사회·문화적 삶의 영역을 각각 주관적 지표(22개)와 객관적 지표(22개)로 구분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삶, 사회·문화적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나,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근식(2012)은 객관적 지표에 주관적인 인식이 종합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영향요인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력이 높은 물질적 요인은 주거환경으로 나타났으며, 비물질적인 요인 중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나타났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5)는 비록 집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객관적 지표로 해석할 때 '생태학적 오류'의 한계는 가지나, 삶의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정책 도출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정창무, 2007).

Ⅲ. 연구방법

1. 삶의 질 평가 지표 도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적 평가지표와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인천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질의 평가지표는 기존의 삶의 질 혹은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따른 지표분류 연구(이성규 외, 2006; 정선기, 2007; 강창민 외, 2010; 이승철, 2011; 배웅규 외, 2012; OECD, 2008; 사카모토 코우지, 2012)를 검토하고, 50여명의 인천시민에 대한 사전 인터뷰 이후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만들어졌다.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교육·문화, 보건·의료,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정보화로 구분한다(〈표 1〉 참조). 우선 사회 부문의 지표는 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기회와 지자체의 시민자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경제 부문은 지역상권의 활성화 정도, 취업기회, 지역의 물가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므로(Trewin, 2001), 이와 관련된 항목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기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문화는 개인의 윤택한 생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를 하므로(Trewin, 2001) 교육·문화와 관련된 문항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동경,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의 기대치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와 정주환경 부문을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포함하였다. 복지부문은 전체의 삶의 질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다(황명진 외, 2008).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개인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며(Trewin, 2001), 재해 및 사고의 위험에 대한 공포심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지표에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였다. 교통은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용되었다.

객관적 평가지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와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였다(〈표 2〉 참조). 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한 비교를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며, 주관적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데이터의 부재 혹은 가용할 수 없는 여건 등으로 인해 주관적 평가지표를 온전히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일부 제한적이다. 특히 정보화 부분은 인터넷 이용률의 데이터로 삶의 질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시 8개 구에 대한 개별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었다. 다만 인천시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3년 69.9%에서 2013

년 현재 82.1%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조사기획과, 2014).

〈표 1〉 삶의 질 만족도 측정을 위한 주관적 평가지표

구분	세부지표
사회	1.지역주민과 지자체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지자체의 시민자치활동(시·구의회, 주민자치센터, 부녀회 활동 등)에 참여한다.
	3.지자체는 지역운영방침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경제	4.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어있다.
	5.취업기회(일자리 등)가 다양하다.
	6.지역의 물가수준은 적당하다.
교육 문화	7.교육시설이 생활권 근거리에 존재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8.교육비·문화여가 활동비 등 자기개발 투자비에 대한 가계지출 부담이 적다.
	9.학생 1인당 교원수가 적당하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10.문화활동공간(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등)이 충분하며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11.여가 및 체육활동공간(산책로, 탐방로, 가족휴양시설, 근린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보건 의료	12.의료시설(병원, 약국 등) 이용이 편리하다.
	13.양질의 의료서비스(다양한 전문의, 응급의료시스템, 최신의료기기 등)를 받고 있다.
	14.보건행정(건강검진, 모자보건사업, 구강검진, 예방접종 등)서비스가 좋다.
정주 환경	15.지역의 대기질이 양호하다.
	16.주변의 수변공간(하천, 강 등)이 깨끗하다.
	17.주변의 쓰레기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8.내가 사는 주변은 소음이 적은 정온한 환경이다.
복지	19.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아동보육시설,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충분하다.
	20.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잘 마련되어 있다.
	21.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안전	22.(CCTV, 조명, 방범 등)에 의해 내가 사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3.공원녹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공원이 범죄로부터 완충작용을 한다.
	24.화재, 재해, 재난, 홍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25.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방지턱, 안전가드 등)이 잘 마련되어 있다.
교통 편리	26.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27.대중교통(버스배차간격, 버스노선 등)이 편리하다.
정보화	28.인터넷과 지역 뉴스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9.관공서나 학교에서 정보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 및 세부 내용

구분	세부지표	구분	세부지표
사회	인구 천명당 공무원 정원 수 (명)	정주 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율 (%)
	사회단체 참여율 (%)		수질오염물질 배출비율 (%)
	자원봉사자비율 (%)		소음 및 진동 배출비율 (%)
경제	재정자립도 (%)		폐기물재활용비율 (%)
	1인당 GRDP (백만원)	복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사회보장 비중 (%)
교육·문화	초등 교원 1인당 학생 수 (명)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개소)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개소)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개소)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 수 (개소)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개소)
보건·의료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개)	안전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 수(명)		1인당 공원면적(m2/명)
교통 편리	도로포장률(%)	정보화	인터넷 이용률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대/인)		

2. 자료수집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20대부터 70대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추출하는 사람의 주관(selection bias) 또는 작위를 일체 배제시키기 위해 단순임의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SRS)을 통해 이루어졌다(조희선 외, 2013). 설문조사는 2013년 10-11월에 직접 면담과 E-mail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회수율은 100%인 400부이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39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설문지 구성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설문은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총 29개의 평가 지표 항목을 도출하였다.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5점)', '그러한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둘째,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5점)', '만족한다(4점)', '보통이다(3점)',

‘불만족이다(2점)’, ‘매우 불만족이다(1점)’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기초정보는 성별, 연령, 거주지, 거주년수, 학력, 소득, 거주 형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한편,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http://kosis.kr)과 인천시 통계연보 및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보고서(2013)에서 획득하였다.

4.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SPSS(ver 18.0)를 이용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도 평가 항목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평가항목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이 이루어졌고, 변수들의 단일차원성과 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method)에 의한 확인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1)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s)이 0.5 이상일 것, (2) 고유값(eignenvalues)이 1.0 이상일 것, 그리고 (3) 요인분석의 전체 설명정도가 최소 60% 이상이어야 한다(조희선 외, 2013). 그 결과 29개의 지표 중 연관성이 떨어지는 4번, 11번, 19번, 25번, 28번, 29번 문항을 제외한 총 23개의 문항에서 8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응답자 특성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후검정(Post-hoc test)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구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평가지표와 객관적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하였다. 객관적 지표에서 활용된 통계 데이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연구, Z-score를 이용하여 표준화하는 연구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객관적 지표를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가중치 부여의 방법으로 표준화하는 경우,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황규선,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Z-score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하였으며, 부문별 지표의 표준화 지수를 합하여 나타냈다. 각각의 측정지표가 나타내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에 따라 Z-score가 ‘+’는 ‘-’로, ‘-’는 ‘+’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삶의 질 평가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총 394명의

표본 중 남자는 204명(51.8%), 여자는 190명(48.2%)으로 구성되며, 연령은 50대 이상이 28.4%(112명)이며, 나머지 연령대는 고른 분포를 보인다. 거주지 분포와 관련해서는 인천 남구와 계양구는 각각 70명,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47명으로 동일하며, 동구, 서구, 부평구, 중구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년수는 20년 이상이 180명으로 가장 높으며,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순이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대졸이 6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직업은 다양하게 고루 분포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301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31.5%를 차지하고, 401만원 이상은 49.2%으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전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가, 월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남성	204 (51.8)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80 (20.3)
	여성	190 (48.2)		관리·사무직	77 (19.5)
연령	20대	95 (24.1)		기능·생산직	46 (11.7)
	30대	93 (23.6)		판매·서비스직	33 (8.4)
	40대	94 (23.9)		전문직	51 (12.9)
	50대 이상	112 (28.4)		주부	89 (22.6)
거주지	중구	36 (9.1)		기타	18 (4.6)
	동구	45 (11.4)	월 평균 소득 (만원)	200 이하	23 (5.8)
	남구	70 (17.8)		201-300	53 (13.5)
	연수구	47 (11.9)		301-400	124 (24.1)
	남동구	47 (11.9)		401-500	95 (24.1)
	부평구	38 (9.6)		501 이상	99(25.1)
	계양구	70 (17.8)	거주형태	자가	146 (37.1)
	서구	41 (10.4)		전세	203 (51.5)
거주년수	5년 미만	94 (23.9)		월세	37 (9.4)
	5-10년 미만	63 (16.0)		기타	8 (2.0)
	10-20년 미만	57 (14.5)	주택유형	아파트	220 (55.8)
	20년 이상	180 (45.7)		다세대주택	119 (30.2)
교육수준	고졸이하	84 (21.3)		단독주택	33 (8.4)
	전문대졸	52 (13.2)		오피스텔	20 (5.1)
	대졸	237 (60.2)		기타	2 (0.5)
	대학원 이상	21 (5.3)			
총 표본수, n=394					

2. 삶의 질 관련 평가 지표 항목에 대한 타당성/신뢰성 검증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주관적 지표를 유형화하여 분류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KMO(Kaiser-Meyer-Olkin)[1]값은 0.82로 높게 나타나 표본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69.35%의 설명력을 갖는다. 측정 항목들의 요인 적재값은 0.50부터 0.85의 범위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0.3의 역치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1998). 8가지 요인의 신뢰성 계수는 0.52부터 0.85로 내적 일관성이 높아(Nunnally et al, 1994)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 문항의 특성들을 반영하여 요인 1은 '사회참여', 요인 2는 '정주환경', 요인 3은 '교육·문화', 요인 4는 '안전', 요인 5는 '보건·의료', 요인 6은 '복지', 요인 7은 '교통편리', 요인 8은 '경제'로 명명하였다.

〈표 4〉 인천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 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요인명	고유값	분산설명력 (R %)	신뢰계수 (Cronbach's α)	요인적재량
사회참여	2.60	11.31	0.85	
문항 1				0.85
문항 2				0.83
문항 3				0.74
정주환경	2.52	10.94	0.72	
문항 15				0.65
문항 16				0.60
문항 17				0.59
문항 18				0.63
교육·문화	2.23	9.68	0.73	
문항 7				0.63
문항 8				0.63
문항 9				0.74
문항 10				0.49
안전	1.99	8.66	0.66	
문항 22				0.75
문항 23				0.68
문항 24				0.72
보건의료	1.88	8.16	0.64	
문항 12				0.49
문항 13				0.72
문항 14				0.84
복지	1.75	7.62	0.74	
문항 20				0.72
문항 21				0.84

1) 변수 쌍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냄

교통편리	1.52	6.59	0.52	
문항 26				0.51
문항 27				0.80
경제	1.47	6.38	0.63	
문항 5				0.55
문항 6				0.85
KMO=0.8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3407.02(p〈0.000), Total variance extracted(%) =69.35				

3.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평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6,7,8〉 참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교육·문화, 정주환경, 교통편리 부문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보건의료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유의미하며,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test) 결과에서는 대체로 30대와 40대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5〉 성별 및 연령별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사회참여	경제	교육문화	보건의료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성별	남성	2.71 (±0.89)	3.12 (±0.74)	3.18 (±0.68)	3.06 (±0.64)	3.13 (±0.61)	3.12 (±0.77)	3.31 (±0.67)	3.31 (±0.70)
	여성	2.42 (±0.79)	3.00 (±0.80)	2.94 (±0.74)	2.95 (±0.68)	2.96 (±0.70)	3.04 (±0.87)	3.19 (±0.66)	3.11 (±0.82)
t값		3.36	1.62	3.43*	1.63	2.52**	0.95	1.80	2.72**
연령	20대(a)	2.48 (±0.78)	3.09 (±0.69)	3.14 (±0.69)	2.97 (±0.63)	2.89 (±0.68)	2.91 (±0.75)	3.11 (±0.66)	3.06 (±0.77)
	30대(b)	2.72 (±0.74)	3.12 (±0.61)	3.17 (±0.59)	3.04 (±0.58)	3.22 (±0.43)	3.39 (±0.67)	3.41 (±0,59)	3.33 (±0.63)
	40대(c)	2.73 (±0.91)	3.26 (±0.84)	3.26 (±0.62)	3.12 (±0.64)	3.25 (±0.67)	3.29 (±0.84)	3.41 (±0.60)	3.44 (±0.83)
	50대 이상(d)	2.39 (±0.92)	2.82 (±0.84)	2.76 (±0.81)	2.92 (±0.75)	2.86 (±0.70)	2.79 (±0.84)	3.11 (±0.73)	3.05 (±0.75)
F값		4.13**	6.18***	10.84***	1.74	10.63***	13.68***	6.77***	6.76***
Post-hoc test (p값)		b〉d (0.056) c〉d (0.045)	a〉d (0.083) b〉d (0.051) c〉d (0.001)	a〉d (0.002) b〉d (0.001) c〉d (0.000)		a〈b (0.006) a〈c (0.001) b〉d (0.002) c〉d (0.000)	a〈b (0.001) a〈c (0.011) b〉d (0.000) c〉d (0.000)	a〈b (0.020) a〈c (0.020) b〉d (0.016) c〈d (0.016)	a〈c (0.008) b〉d (0.064) c〉d (0.003)
* p〈0.1, ** p〈0.05, *** p〈0.01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른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교육·문화,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부문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부문의 경우 동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들이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정주환경은 중구가 가장 높은 반면, 부평구의 거주자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중구, 동구,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 안전부문에서는 서구가 부평구와 계양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교통편리 부문에서는 남동구가 남구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년수에 따른 삶의 질 평가는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가 사회참여, 교육·문화, 보건·의료, 복지부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거주지 및 거주년수별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사회참여	경제	교육문화	보건의료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거주지	중구(a)	2.48 (±0.81)	2.97 (±0.60)	3.12 (±0.59)	3.00 (±0.61)	3.24 (±0.52)	3.24 (±0.73)	3.33 (±0.55)	3.19 (±0.72)
	동구(b)	2.73 (±0.89)	3.27 (±0.73)	3.32 (±0.73)	3.12 (±0.67)	3.16 (±0.60)	3.26 (±0.88)	3.31 (±0.69)	3.40 (±0.70)
	남구(c)	2.44 (±0.80)	3.07 (±0.57)	3.16 (±0.61)	3.03 (±0.59)	2.91 (±0.71)	3.08 (±0.75)	3.23 (±0.71)	2.94 (±0.73)
	연수구 (d)	2.41 (±0.77)	3.04 (±0.76)	2.99 (±0.78)	2.90 (±0.56)	3.13 (±0.56)	3.12 (±0.80)	3.30 (±0.57)	3.22 (±0.63)
	남동구 (e)	2.81 (±0.77)	3.18 (±0.82)	3.13 (±0.69)	3.07 (±0.69)	3.15 (±0.57)	3.13 (±0.89)	3.27 (±0.52)	3.46 (±0.69)
	부평구(f)	2.45 (±0.95)	3.09 (±0.87)	2.66 (±0.84)	2.84 (±0.90)	2.76 (±0.80)	2.66 (±0.95)	2.91 (±0.70)	3.20 (±0.85)
	계양구 (g)	2.55 (±0.93)	2.89 (±0.93)	2.95 (±0.76)	3.02 (±0.70)	2.95 (±0.66)	2.96 (±0.72)	3.11 (±0.70)	3.20 (±0.74)
	서구(h)	2.76 (±0.86)	3.06 (±0.78)	3.16 (±0.56)	3.04 (±0.52)	3.17 (±0.67)	3.24 (±0.81)	3.63 (±0.68)	3.23 (±0.99)
F값		1.69	1.23	3.31***	0.79	2.84**	2.45**	4.05***	2.38**
Post-hoc test (p값)				b〉f (0.013) c〉f (0.099)		a〉f (0.032)	a〉f (0.047) b〉f (0.020) f〈h (0.030)	f〈h (0.002) g〈h (0.027)	c〈e (0.075)
거주년수 (미만)	5년(a)	2.40 (±0.87)	3.06 (±0.79)	2.90 (±0.79)	2.96 (±0.72)	2.98 (±0.68)	2.91 (±0.79)	3.18 (±0.65)	3.24 (±0.79)
	5-10년 (b)	2.38 (±0.77)	3.00 (±0.58)	2.91 (±0.76)	2.83 (±0.61)	2.99 (±0.61)	2.98 (±0.82)	3.19 (±0.57)	3.10 (±0.67)
	10-20년 (c)	2.69 (±0.93)	3.04 (±0.81)	3.10 (±0.61)	3.01 (±0.66)	3.04 (±0.67)	3.13 (±0.88)	3.37 (±0.77)	3.08 (±0.84)
	20년이상(d)	2.69 (±0.83)	3.09 (±0.81)	3.19 (±0.67)	3.09 (±0.63)	3.10 (±0.66)	3.19 (±0.81)	3.27 (±0.67)	3.28 (±0.76)
F값		3.96**	0.22	4.72***	2.76**	0.95	2.86**	1.27	1.50
Post-hoc test (p값)		a〈d (0.061)		a〈d (0.016) b〈d (0.055)	b〈d (0.057)		a〈d (0.066)		
* p〈0.1, ** p〈0.05, *** p〈0.01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는 교통편리 부문을 제외한 7가지 부문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직업군에 따라서는 정주환경, 교통편리를 제외한 6개 부문이 유의미하며, 전업주부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경제와 교통편리를 제외한 부문에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교육수준, 직업, 소득별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사회참여	경제	교육문화	보건의료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교육수준	고졸이하(a)	2.17 (±0.86)	2.76 (±0.90)	2.58 (±0.77)	2.82 (±0.75)	2.91 (±0.73)	2.70 (±0.89)	3.02 (±0.71)	3.08 (±0.78)
	전문대졸(b)	2.56 (±0.94)	2.72 (±0.77)	3.05 (±0.78)	3.04 (±0.65)	2.96 (±0.73)	3.16 (±0.93)	3.26 (±0.68)	3.23 (±0.87)
	대졸(c)	2.71 (±0.79)	3.22 (±0.68)	3.22 (±0.61)	3.06 (±0.63)	3.12 (±0.60)	3.21 (±0.74)	3.34 (±0.62)	3.26 (±0.75)
	대학원 이상(d)	2.60 (±0.87)	3.38 (±0.57)	3.33 (±0.59)	3.05 (±0.46)	2.93 (±0.69)	2.98 (±0.66)	3.11 (±0.76)	3.14 (±0.62)
F값		8.76***	13.07***	19.65***	3.06**	2.86**	8.52***	5.27***	1.29
Post-hoc test (p값)		a〈b (0.068) a〈c (0.000)	a〈c (0.000) a〈d (0.009) b〈c (0.000) b〈d (0.008)	a〈b (0.001) a〈c (0.000) a〈d (0.000)	a〈c (0.032)	a〈c (0.083)	a〈b (0.014) a〈c (0.000)	a〈c (0.002)	
직업	대학(원)생 (a)	2.65 (±0.81)	3.21 (±0.66)	3.31 (±0.59)	3.10 (±0.60)	3.00 (±0.60)	2.95 (±0.77)	3.15 (±0.62)	3.15 (±0.72)
	관리·사무직(b)	2.56 (±0.84)	3.15 (±0.64)	3.15 (±0.65)	3.01 (±0.61)	3.14 (±0.72)	3.09 (±0.75)	3.42 (±0.74)	3.06 (±0.60)
	기능·생산직(c)	2.84 (±0.81)	2.97 (±0.77)	3.41 (±0.68)	3.06 (±0.60)	3.16 (±0.52)	3.40 (±0.65)	3.39 (±0.64)	3.42 (±0.67)
	판매·서비스직 (d)	2.36 (±0.71)	3.03 (±0.81)	3.03 (±0.63)	3.20 (±0.70)	2.96 (±0.70)	3.15 (±0.95)	3.33 (±0.57)	3.48 (±0.68)
	전문직(e)	2.76 (±0.91)	3.27 (±0.82)	3.02 (±0.70)	3.01 (±0.68)	3.10 (±0.68)	3.20 (±0.76)	3.23 (±0.59)	3.38 (±0.94)
	주부(f)	2.28 (±0.88)	2.75 (±0.84)	2.60 (±0.75)	2.82 (±0.70)	2.97 (±0.67)	2.96 (±0.96)	3.11 (±0.72)	3.08 (±0.85)
	기타(g)	2.87 (±0.75)	3.31 (±0.75)	3.22 (±0.51)	3.07 (±0.75)	2.90 (±0.74)	2.94 (±0.70)	3.24 (±0.57)	3.28 (±0.75)
F값		3.84***	4.40***	11.42***	2.03*	0.98	2.20**	2.25**	2.81**
Post-hoc test (p값)		c〉f (0.038)	a〉f (0.017) b〉f (0.069) e〉f (0.015)	a〉f (0.000) b〉f (0.000) c〉f (0.000) e〉f (0.051)	a〉f (0.091) d〉f (0.065)		a〈c (0.044) c〉f (0.041)	b〉f (0.042)	

				f<g (0.046)					
소득 (만원)	200이하 (a)	2.23 (±0.65)	3.07 (±0.79)	2.86 (±0.73)	2.90 (±0.54)	2.58 (±0.88)	2.91 (±0.65)	3.16 (±0.64)	3.00 (±0.88)
	201-300 (b)	2.31 (±0.78)	2.84 (±0.91)	2.84 (±0.86)	3.01 (±0.55)	3.01 (±0.65)	2.92 (±0.93)	2.93 (±0.60)	3.12 (±0.84)
	301-400 (c)	2.60 (±0.79)	3.13 (±0.63)	3.12 (±0.65)	2.97 (±0.58)	3.10 (±0.55)	3.05 (±0.79)	3.24 (±0.65)	3.26 (±0.69)
	401-500 (d)	2.60 (±0.91)	3.03 (±0.76)	3.02 (±0.70)	2.89 (±0.75)	3.12 (±0.64)	3.30 (±0.83)	3.35 (±0.69)	3.31 (±0.74)
	501이상 (e)	2.72 (±0.92)	3.13 (±0.84)	3.21 (±0.69)	3.19 (±0.71)	3.03 (±0.71)	3.04 (±0.79)	3.37 (±0.65)	3.16 (±0.81)
F값		3.01**	1.56	3.13**	2.88**	3.61**	2.65**	4.67***	1.28
Post-hoc test (p값)		b<e (0.092)		b<e (0.059)	d<e (0.045)	a<c (0.013) a<d (0.012) ae (0.061)		b<c (0.091) b<d (0.009) b<e (0.004)	
* p<0.1, ** p<0.05, *** p<0.01									

거주 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사회참여, 경제, 정주환경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문화, 복지, 교통편리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전세,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유형과 관련하여, 정주환경은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부문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와 교통편리 부문에서는 기타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거주형태 및 주택유형별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사회참여	경제	교육문화	보건의료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거주 형태	자가(a)	2.44 (±0.93)	2.83 (±0.85)	2.88 (±0.77)	2.97 (±0.74)	2.87 (±0.67)	2.85 (±0.79)	3.18 (±0.75)	3.10 (±0.78)
	전세(b)	2.67 (±0.77)	3.19 (±0.69)	3.18 (±0.65)	3.05 (±0.62)	3.16 (±0.59)	3.24 (±0.81)	3.31 (±0.58)	3.31 (±0.73)
	월세(c)	2.68 (±0.92)	3.31 (±0.70)	3.14 (±0.66)	2.99 (±0.47)	3.17 (±0.73)	3.16 (±0.83)	3.19 (±0.77)	3.26 (±0.75)
	기타(d)	2.08 (±0.99)	3.06 (±0.42)	3.13 (±0.87)	2.67 (±0.56)	2.72 (±0.83)	2.88 (±0.58)	3.42 (±0.68)	2.75 (±1.16)
F값		3.11**	8.08***	5.34***	1.24	7.25***	7.20***	1.46	3.24**
Post-hoc test (p값)		a<b (0.065)	a<b (0.000) a<c (0.007)	a<b (0.002)		a<b (0.000) a<c (0.089)	a<b (0.000)		a<b (0.087)
주택 유형	아파트 (a)	2.57 (±0.88)	2.96 (±0.80)	2.99 (±0.68)	2.99 (±0.69)	2.99 (±0.66)	2.98 (±0.77)	3.21 (±0.70)	3.18 (±0.79)

	다세대 주택(b)	2.58 (±0.79)	3.21 (±0.68)	3.15 (±0.78)	3.05 (±0.62)	3.09 (±0.65)	3.26 (±0.90)	3.30 (±0.66)	3.23 (±0.72)
	단독주택(c)	2.60 (±0.98)	3.15 (±0.85)	3.11 (±0.72)	2.96 (±0.67)	3.11 (±0.67)	3.02 (±0.81)	3.22 (±0.50)	3.12 (±0.75)
	오피스텔 (d)	2.57 (±0.83)	3.13 (±0.76)	3.30 (±0.63)	3.15 (±0.49)	3.40 (±0.36)	3.20 (±0.78)	3.40 (±0.50)	3.50 (±0.67)
	기타(e)	1.67 (±0.00)	3.25 (±0.35)	3.75 (±0.00)	2.33 (±0.00)	2.00 (±0.00)	3.00 (±0.00)	4.33 (±0.00)	4.50 (±0.00)
F값		0.56	2.13*	2.13*	0.96	3.50**	2.54**	2.03*	2.37*
Post-hoc test (p값)			a〈b (0.045)			d〉e (0.077)	a〈b (0.052)		c〈e (0.095)
* p〈0.1, ** p〈0.05, *** p〈0.01									

4.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인천시의 물리적·비물리적 인프라 여건 분석

본 연구는 인천시 8개 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객관적 검증의 한 방법으로 인천의 물리적·비물리적 인프라의 여건을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8개 요인에 맞춰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Z-score를 이용하여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중구(18.693)는 8개 자치구 중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 평가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으며, 부평구(1.654), 연수구(1.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구는 총점이 가장 낮으며 특히 사회참여, 보건·의료, 정주환경, 교통편리 부문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인천시의 8개 구별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 평가

구분	사회참여	경제	교육문화	보건의료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
중구	1.837	3.787	5.000	4.566	-3.659	2.833	1.311	3.018
동구	-0.191	-0.229	-0.359	-0.410	-0.102	-2.984	0.659	0.334
남구	-1.261	-1.615	0.274	-0.290	1.528	-1.622	-1.258	0.503
연수구	1.213	0.359	-2.351	-1.170	2.894	0.143	0.564	-0.459
남동구	-1.379	0.184	-1.012	0.178	0.708	-1.447	-1.365	-0.559
부평구	2.273	-1.537	0.004	-0.743	2.073	0.619	-0.691	-0.344
계양구	-1.046	-1.677	-1.065	-0.305	3.020	1.289	0.446	-0.424
서구	-1.448	0.728	-0.491	-1.824	-6.462	1.170	0.333	-2.069

각 부문별 객관적 지표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 부문의 세부지표(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 사회단체참여율, 자원봉사자비율) 값을 합산하여 지역별 격차를 분석한 결과, 부평구(2.273), 중구(1.837), 연수구(1.21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의 경우 중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평가 점수가 높으며 서구, 연수구 남동

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및 인천항이 소재해 있는 중구는 운수업의 비중이 높아 인천 8개 자치구 중 1인당 GRDP가 가장 높았으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재정자립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문화 부문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한 결과, 중구, 남구, 부평구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구는 문화기반시설과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입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부상으로 인해 많은 인구유입이 이루어졌으나, 유입된 인구에 비하여 교원 수, 문화기반시설은 증가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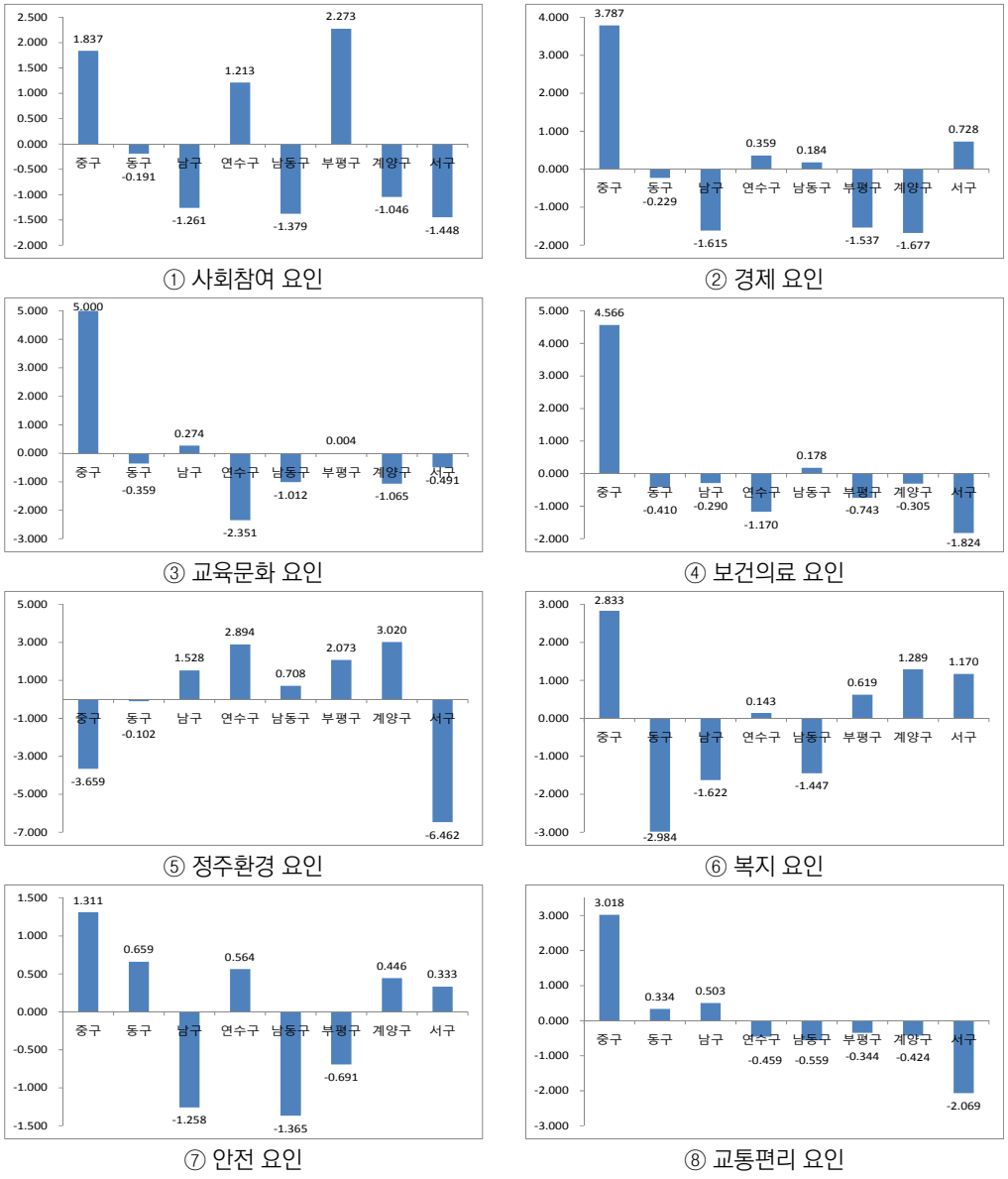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중구와 남동구의 경우 인구수 대비 의료기관 병상 수 및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이 소재해 있는 것과 연관된다.

정주환경에서는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 등의 순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는 폐기물재활용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 및 진동 배출비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와 서구는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낮으나 대기·수질·소음 및 진동 물질 배출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여 정주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문에서는 중구, 서구, 계양구 등의 순으로 삶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잘 구비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양호한 편이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남구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부문의 경우 중구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동구, 연수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34개소의 도시공원을 보유하고 있고, 8개 구 중 가장 넓은 도시공원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 녹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공원이 범죄로부터 완충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구는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낮은 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편리는 중구(3.018), 남구(0.503), 동구(0.334)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주민들의 효율적인 이동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점수가 낮은 서구는 다른 지역의 도로포장률이 최소 85% 이상인 것에 비해 58.9%로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림 1〉 요인별 지역격차 분포

5.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측정지표 평가간의 비교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측정지표 평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항목에 국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주관적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교육·문화, 정주환경, 복지, 안전, 교통편리로, 각 항목에 대해 객관적 측정지표 점수와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천 동구는 교육·문화와 복지 부문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객관적 측정 지표의 평가 점수는 최하위였다. 중구는 객관적 측정지표의 총점이 가장 높았으나, 주관적 만족도는 정주환경과 복지 부문에서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구는 복지와 안전부문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객관적 측정지표의 평가 점수는 8개 구 중 각각 4위와 5위에 해당한다. 교통편리 부문의 주관적 만족도는 남동구가 가장 높고 남구가 낮은데, 두 지역 모두 객관적 평가 점수는 높지 않다. 한편, 부평구는 교육문화, 정주환경, 복지, 안전부문에서의 주관적 만족도가 하위권인데, 객관적 평가 점수는 8개 구 중 각각 3위, 3위, 5위, 6위에 해당한다. 본 연구결과는 주관적 만족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김정태 외, 2005),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배웅규, 2013)를 뒷받침한다. 비록 본 연구는 도시의 인프라 수준 혹은 발전 수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쌍대비교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역 인프라의 양적 수준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을 내포한다.

V. 결 론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시의 전반적 삶의 질 및 행복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객관적인 지표와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기반여건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 측정지표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인천광역시 8개 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정량적 통계와 정성적 만족도 사이에는 괴리가 보였다.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도는 동구, 서구, 남동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객관적 측정지표의 평가 점수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는 측정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거주지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는 객관적 측정지표 평가점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만족도는 도시 기반 시설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질적 수준 혹은 또 다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리적·비물리적 인프라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삶의 질 검증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삶의 질의 측정지표로 추출한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하여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객관적 측정지표로 선정된 변수들이 주관적 만족도의 측정 항목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구를 단위로 하는 통계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대신할만한 지표를 선정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셋째,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측정지표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를 추적할 경우, 지역 맞춤형 혹은 지역 밀착형의 정책 수립 및 부족한 도시 기반 시설의 구축이 수월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민·양기근. (2010).「제주특별자치도민의삶의질(행복지수)평가연구」. 제주발전연구원.

고영복. (2000).「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국립특수교육원. (2009).「특수교육학용어사전」. 하우.

권영섭. (2013).「저성장 시대 행복한 지역발전의 조건과 지표개발연구」. 국토연구원.

김구. (2003).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보성군 삶의 질 분석.「지역개발연구」, 8(2): 91-109.

김순호·정혜영·이명훈. (2012). 연령별 가중치 분석을 통한 시의 삶의질 지표 선정.「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453-462.

김정태·한성수. (2005). 삶의 질의 지역 간 상대적 효과 분석:공간 연계성 및 도시화도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9(3): 652-668.

김창연·조영미·이혜경·박진경. (2012).「2012서울여성행복지표개발 및 측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현옥·이한나. (200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생활 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한국생활과학회지」, 15(1): 83-93.

배웅규·김동용·윤용우·정동섭. (2013).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 개발 방안 연구:경상남도 하동군을 중심으로.「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5): 113-126.

배웅규·윤용우·김동용·김원·조성권·김미경·이하영. (2012).「하동행복지수개발방안연구」. 하동군.

사카모토코우지(坂本光司). (2012).「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주민」(임정빈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영석·이곤수. (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경주시사례.「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59-180.

이경태·권영주. (201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경기도민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17(1):

97-132.

이성규·조경진·조민현·최샛별·이종아·주혜정. (2006). 「시민행복지수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승철. (2011). 도시 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 요인: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2): 97-119.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이태종·송건섭. (201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3): 185-213.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정책연구」, 10(1): 47-89.

임진택. (2003).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시,군자치단체의 객관적지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선기. (2007). 「2007 대전 시민의 삶의 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정창무. (2007). 삶의 질 분석 모형:사회통계 지표를 중심으로. 「계획계」, 23(12): 245-252.

조희선·변병설·박순희. (2013). 도시 어메니티 계획에 대한 인식과 어메니티 지표의 중요도 평가: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7(3): 351-361.

하혜수. (1996). 도시 정부의 삶의 질 결정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환경부. (2008). 「에코시티 해외사례집」. 환경부.

황규선. (2012).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황명진·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Diener, E, R.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1985). The Satisfaction with K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Donnelly, S. (2004). How Bhutan Can Measure and Develop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http://www.economist.com/media/pdf/QUALITY_OF_LIFE.pdf.

Hair, J. F,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 5th Edition.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International.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OECD. (2008). OECD Factbook.

Trewin, D. (2001). *Measuring Wellbeing*.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Veenhoven, R. (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om*, 2-3 April 2007.

접수일(2015년 10월 29일)
수정일(2015년 12월 07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14일)